

여행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11년의 제작기간 그리고 총 10만장의 작화작업을 거쳐 완성된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에는 주인공인 '이랑'과 '철수'의 꿈에 관한 이야기 뿐 아니라 70~80년대 한국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사실감 넘치는 풍경이 눈에 띈다.

■ 군산 IC 인근 '옹고집 썸밥'

우렁 앓은 된장에 싱싱한 썸 한입 가득~

추억을 따라 충분히 걸었는가? 이제는 추억을 맛볼 시간.

군산 IC 근방 시골마을에 폐교를 개조해 만든 '옹고집 썸밥'은 너른 운동장을 지나 나무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면 교무실, 교실 등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썸밥과 돌 개장 정식으로 양철 도시락에 담긴 구수한 썸밥, 한상 가득 차려진 반찬과 우렁이 올라간 직접 담근 장, 싱싱한 썸 소 등 교실에 둘러 앉아 맛보는 추억이 참 정겹기 만 하다. 무엇보다 이름 그대로 고집스럽게 담긴



전통 정맛에서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지며 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시민기자=박수정(주미로스튜디오)

시간이 멈춘 곳... 걸기만 해도 영화 속 주인공

녹슨 철로 위 무성한 풀들  
철이 벗겨진 낡은 판잣집  
70~80년대 느릿한 풍경  
그 '어떤 날'로의 시간여행

실제로 제작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배경이었다. 제작진들이 전국을 답사하며 당시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명소들을 찾아내 이를 모델로 생생하게 작업하면서 사실감 넘치는 풍경을 만날 수 있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우산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던 배경인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이 바로 오늘 소개할 우리들의 그라운 '풍경'이다.

녹슨 철로 위로 웃자란 무성한 풀들, 철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철이 벗겨진 판잣집과 낡은 집들, 인기척에 아랑곳 않고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는 고양이, 문밖에 놓인 알록달록 꽃 핀 화분, 빨래집게, 벽에 기대인 자전거, 웅기종기 장독대가 놓인 느릿한 풍경이 70,80년대 한국의 어떤 날로 시간 여행을 와 있는 것만 같다.

이 마을에는 몇 해 전까지 해도 좁은 골목의 집과 집 사이를 가로지르던 기차가 있었다. '폐이퍼 코리아선'이라 불리던 이 기차는 1944년에

신문용지 재료를 군산역에서 공장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총연장 2.5km로 준공된 철로를 따라 마을을 통과했다. 2008년 6월을 마지막으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곳은 이제 열차와 마을이 공생하던 시절의 흔적과 추억만을 간직하고 있다.

북적 북적하던 과거와 달리 많은 이들이 이 곳을 떠나면서 빈집이 종종 눈에 띄긴 하나 여전히 철길마을에는 주민들의 정겹고 소박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소중한 날의 꿈'뿐 아니라 다양한 TV광고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철길마을의 풍경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 잘 간직되길 바라며 애뜻한 풍경을 사각프레임 속에 가둬본다.

군산에는 이 외에도 곳곳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관광코스과 군산 도보여행인 구불길 코스 등이 잘 개발돼 있다.

구불길이란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수풀이 우거진 길을 여유, 자유, 풍요를 느끼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군산도보 여행을 뜻한다.

그 중 '구불 1길 - 비단강 길'은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총 18.7Km 여정의 도보 코스다.

비단처럼 펼쳐진 금강을 따라 채만식 문학관, 겨울철이면 철새의 군무를 관람할 수 있는 금강철새조망대, 금강호관광지, 우성산, 나포심자루 등을 둘러보며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불 7길 - 새만금 길'까지 다양한 코스가 구성돼 있으며 이러한 여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문화관광 : <http://tour.gunsan.go.kr/>)  
/시민기자=박수정(주미로스튜디오)



57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1. 개요 : 작품공모

- 1) 대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 2)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3) 기간 : 2012년 6월 11일(월) ~ 6월 15일(금)
- 4) 결과발표 : 2012년 6월 26일(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5)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2. 참가

- 1) 참가비 :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단체는 접수 전 연락바랍니다. (062-220-0541)
- 2) 접수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 축제 담당자 앞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 우편번호 501-711

3. 유의사항

- 1)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2)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3)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시상에서 제외됨
- 4)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 주최 | 광주일보사

|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